

하늘의 역사는 시작도 끝맺음도 소사(素砂)에서 한다

격암유록 『은비가(隱秘歌)』와 『초장(初章)』에는 훈돌(백석=소사素砂)과 그 외의 정화한 지명이 그대로 나온다.

素砂箇朴天旺地 富內曉星延壽地 蘇葉
白石桂樹地 〈소사〉〈범박〉천왕지 부내
효성연수지 소래〈백석〉〈계수〉지
別有天地非人間 武陵桃源弓弓地 聖山
聖地吉星地 별유천지비인간 무릉도원
궁궁지 성산성지길성지 - 『은비가』

吉地吉地何吉地 三神山下牛鳴地 桂樹
箇朴是吉地. 길지길지하길지 삼신산하
우평지 계수범박지길지-『초장』

‘소사동’과 ‘범박동’은 경기도 부천시에 속하며 소래산과 계수동은 인근의 시흥시에 있는 곳으로 모두 이긴자 조희성님 이 거주하거나 도를 닦은 장소이다.

현재 승리제단 본부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175-2(부천시 안곡로 205번길 37)이다. 오백년 전, 민간 고서인 기해상원일서(己亥上元日書)에 ‘人衆之地驛谷勝地(인중지지역곡승지)’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곡은 이긴자 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衆(무리)자는 원본에는 사람 인(人)자 세 개가

모여 있는 글자(𠂇)로 표기되어 있다. 인내천 사상에 근거하면 𠂇의 글자는 삼위 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

역곡은 경인 전철역으로 생긴 지명이지 예전부터 내려온 지명이 아니다. 역곡(驛谷)이란 지명이 생기기 훨씬 이전(以前), 조선 초기에 이렇게 ‘역곡이 이긴자가 계시는 곳’이라고 예언하였으니 선조들의 혜안에 놀라울 데다.

경인지방이 길지(吉地)

도(道)를 뒤는 사람들이거나 진인(眞人)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지(吉地)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어느 곳에서 유명한 도인(道人)들이 많이 나왔거나 진인(眞人)이 있다면 그들은 그곳을 찾아간다. 길지(吉地)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격암유록은 길지(吉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平沙三里十勝吉地(평사삼리십승길지)” 즉 하늘의 역사는 시작도 끝

이를 보면 하늘나라는 지상천국과 무릉도원을 의미하므로 경인지방에서도 소사가 최고의 길지가 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전설의 무릉도원이 바로 부천의 소사(素砂)이며, 격암유록 뿐만 아니라 성경(계시록 2:17)에서도 소사(素砂=한돌)에 정도령(正道令) 이긴자가 계신다고 예언하고 있다.*



부천시립박물관
부천시립박물관
부천시립박물관

정도령이 감로를 내리니 삼십일에 아홉 번만 먹어도 불사영생하리라



격암유록 新解설
수정판 제89회

삼풍론(二) 三豐論

三旬九食三豐敷 삼순구식삼풍곡을
弓乙之中 궁을지중차보세
第一豐 제일풍에 八人登天 팔인등천
惡化爲善一穀 악화위선일곡이요
第二豐 제이풍에 非雲真雨 비운진우
心靈變化二穀 심령변화이곡이요
第三豐 제삼풍에 有露眞露 유로진로
脫劫重生三穀 탈겁증생삼곡이라
三豐三穀世無穀之 삼풍삼곡세무곡지
十勝中 십승중에 出現 출현하니
鄭氏黎首之民 정씨여수주민으로
兩白三豐 양백삼풍일년다네
世末大歉飢死境 세월다경기사경에
拯濟萬民天穀 증재만민천곡으로
和氣東風久盡悲 화기동풍구진비에
天下蜂蝶呼來 천하蜂접호래하니
不死消息永春節 불사소식영춘절에
廣濟蒼生 광제창생하여보세
天理三豐 천리삼풍일았거든
地理三豐 지리삼풍알을세라
三豐之理豐基延豐 삼풍지리풍기연풍을
地理三豐傳 지리삼풍전했으니



식으로 십승 가운데서만 출현하나니
정도령은 검은 머리를 한 백성 가운데
서 나와서 먹고 또 먹으면 사람 몸이 죽
지 않는 양백 삼풍을 알려 주었다네. 말
세에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를 때 세계 만민을 구제하는 하늘의
곡식이 되니라. 온화한 봄바람이 불어
오면 오랜 동안 지속된 슬픔이 다하게
되니 벌나비가 꽃을 보고 날아들 듯 하
늘나라 곡식(삼풍)을 찾아 세계 만민이
환호하며 찾아서 오리라. 그때에 영원
히 봄철만 계속되는 죽음 없는 영생의
소식을 전하여 천하 창생을 널리 구제
하여 보세. 천리 삼풍을 알았다면 지리
삼풍을 알았어야. 삼풍의 이치가 풍기
연풍이 지리 삼풍이라 전했지만

三論論 삼풍론에 一曰豐基 일왕풍기
最高福地三豐 최고복지삼풍인가
耕者不獲獲者不食 경자불획자불식
엇지하여 福地 복지이며
食者不生塵霧張天 식자불생진무창천
穀種三豐 곡종삼풍언치될고
豐基茂豐延豐 풍기무풍연풍으로
地理三豐傳 지리삼풍전했으나
天理三豐出世 천리삼풍출서로서
地理三豐不利 지리삼풍불리로다
豐今豊今無情之豐 풍혜풍혜무정자풍
非三豐 비삼풍이아니던가

한 달에 아홉 끼만 먹어도 굶주림 없
이 불사영하는 하늘나라 곡식인 삼풍
을 궁을 가운데서 찾아보세. 삼풍 중에
제1풍(火)은 하늘을 오르는 불 성령으로
서 악(惡)한 것을 선(善)한 것으로 되게
하니 첫 번째 곡식이요 제2풍(雨)은 구
름이 아닌 데서도 진짜 단비가 내려 인
간의 심령을 변화시키니 두 번째 곡식
이요. 제3풍(露)은 이슬 형상을 하면서
진짜 비처럼 내리는 감로(甘露)로서 탈
감증생(脫劫重生) 즉 인간의 달을 벗고
거듭나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하게 하
니 세 번째 곡식이니라.
삼풍의 세 곡식은 이 세상에 없는 곡

秘文隱理推算法 비문은리추산법을
式식모르고엇자일리
兩白三豐非吉地 양백삼풍비길지를
浪仙子 낭선자의 明示명시로서
三豐海印亦一理 삼풍해안역일리니
海印造化無爲化 해인조화무위화라
四覽四覽天心化 사람사람천심화로
不入中邊 불입중변일침마소
七年大旱水壞境 칠년대한수온경에
三豐農事 삼풍농사지어보세
十皇兩白弓乙中 십황양백궁을중에
三極三乾三豐道師 삼극삼간삼풍도사
坤三絕化乾三連卦 곤삼절화간삼현래
兩白三豐 양백삼풍아울세라

삼풍론에 한 마디로 풍기가 최고로
복된 땅이요 삼풍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밤 간 자가 수확하지 못하고
수확한 자가 먹지 못하니 어찌하여 복
지이며 먹은 자도 살지 못하는데 먼지
같은 것이 안개처럼 하늘을 뒤덮으니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구원의 자격, 구세주가 될 때 갖추어져

23년간의 역사가 흘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세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주에서 처음으로 나온 철학이며 또한 마지막이 될 완성의 학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드는 학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되는 철학, 구세주 되는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구세주 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천기에 속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역사 육천년 이래 이와 같은 철학을 논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완성자만이 이러한 철학을 처음으로 논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하늘나라의 지혜요, 하늘나라의 학문입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⑨

실내에서 쉽게 따라하는 균형운동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균형이 충분히 있어야 매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독

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평소 균형 운동을 하면 근육의 힘이 늘어나고, 근육 위축은 줄어들며, 근육의 빠른 결합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작①②: 허리 균형, 내외 복시근 동시 단련, 젖히고 올릴 때 척추 일직선 유지. 허리와 하복근 상체 회전에 필요한 내외 복시근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

동작①: 바닥에 앉아 상체를 곧게 세운다. 양 팔은 앞으로 쭉 뻗고 양 발바닥은 바닥에 댄 채 무릎을 구부린다.

동작②: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게 유지하며 뒤로 눕는다. 팔이 바닥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처음에는 각도를 작게 한다. 5~10초 유지. 5회

동작③④: 하체의 균형은 앞뒤와 좌우로 자동한다. 복부, 골반을 강화해 몸의 벨런스를 유지해 준다.

동작③: 편안하게 옆으로 누운 뒤 베개나 손을 이용해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이 상태에서 숨을 내 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린다. 숨을 들이 마시면서 10초 유지 후 숨을 내쉬면서 다시 다리를 내린다. 양쪽 각각 5회.

동작④: 역시 옆으로 누워 골반은 바닥에 붙인 채 양쪽다리를 동시에 위로 든다. 높이 올리기보다는 몸이 앞뒤로 넘어가지 않고 위에서 뺏을 때 상, 하체가 일직선을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0초 유지 양쪽 각각 5회.*

구세주 말씀 중에서⑨

구세주 말씀 중에서⑨

불로초 감로

전도 문답 [61]

질문: 불로초 감로에 관련된 불경 기록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불경에서는 ‘감로해인’을 불로불사를 이루는 것으로서 아미타 미륵불이 내리시는 대야반광명 등으로 표현하며 대반야반경, 화엄경, 능엄경, 법화경 등 불경 전체에 걸쳐 미륵불의 증표이며 아미타 부처님이 들고나오시는 증표로써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아미타 용어의 암시와 아미타와 관련된 예언에는, 장자 감로의 정도를 설하시게 될 아미타불(미륵불)이 출현하면 불로불사의 감로 범우를 내리시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화엄경 26권에 보면, “한 생각하는 순간에 분신으로 우주에 가득차서 감로의 범을 내리시니 중생들의 번뇌가 소멸된다.”고 했으며, 대반야반경 5권

사상품에서는 “이곳은 죽음이 없으며 즉 이것이 감로요, 이 감로자는 즉 진정한 해탈자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석가세존이 48년간 설법에서 감로의 정도(正道)가 나와야 비로소 성불하게 된다고 하시다가 감로는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물려와서 감로의 정도를 설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구절이 열반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원컨대 여래시여 우리들에게 감로의 정도를 보여서 지도하시고 세

상을 오래 사시고 열반에 들지 마음소서!”

위의 열반경 수명품의 내용을 볼 때 석존 당시에는 감로의 정도가 나오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로해인의 실제와 어원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래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존재이며, 무너지지도 않으며 질병이 없는 자이며 곧 해탈이니라, 참 해탈자 이것이 곧 여래이며 여래는 병이 없다. 이런고로 범신이라 한다. 죽는 자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는 것이다. 이곳에는 죽음이 없다. 즉 이것이 감로이다. 이 감로가 참 해탈이다. 여래는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했느니라.” - 『대반야반경 5권 여래성품 4-2』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불법의 근본 목적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 참 해탈, 극락(없는 고통)과 행복 속에서 불사명생활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 밖에도 법구경의 안녕품에는 생사의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감로의 맛을 알고 이를 먹는 데 있다고 했으며, 법화경 보문품에도 바로 감로를 먹음으로써 번뇌가 없어지고 생사의 해탈을 이루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실제로 죽지 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오산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横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